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준비 ‘속도전’

전북바이오진흥원, 특별기획전·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B2B·B2C 통합 마케팅으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E 2025)'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엑스포는 발효, K-FOOD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세계 20개국 3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발효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해 행사의 보완점을 개선하고, 참가 기업과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시 콘텐츠 강화와 프로그램 다양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B2B와 B2C 통합 마케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전북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수출 전문기관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B2B 상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 현장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우체국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해 할인쿠폰 제공 및 온라인 판촉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시 부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대한부자무역진흥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해 식품산업 트렌드와 바이어 수요를 반영한 시장맞춤형 제품을 선보인다.

더불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상담 및 비즈니스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전북발효식품은 물론 △지역 특화 클러스터 상품 △전북 우수상품 △6차산업 제품 △간편식 등 전략형 품목을 강화해 현장 거래 실적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발효의 과거·현재·미래 특별전을 비롯해 △전북식품명인대전 △전북향토음식홍보전 △'올해의 건배주' 전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판매전을 운영,

중소 식품기업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돕는다. 더불어 해조류·어류 기반의 수산가공품과 젓갈류 등 다양한 식품군이 참여해 풍성한 먹거리 축제가 될 전망이다.

해외기업관에는 이탈리아·호주·스페인·조지아·일본 등 12개국 34개사가 참가, 각국의 독특한 발효식품과 이색적인 제품들을 선보인다. 부대행사로 는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뮤지컬 타악 퍼레이드, VR 체험, 전통놀이, 현장 이벤트 등 세대별 맞춤형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우정청·진안우체국·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체크카드' 출시

전북지방우정청과 진안우체국은 진안군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체크카드'를 22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은 진안군 내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우체국뱅킹 및 dmk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진안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금액이 소진된 이후에도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전국 어디서나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충전 시 상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 이용자들은 캐시백과 각종 할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동참할 수 있다.

진안우체국은 상품권 출시를 기념해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병무 진안우체국 국장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체크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금융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체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출시로 진안군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모범 사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은행, 전주 지역 아동센터 2곳에 '희망의 공부방' 선물

다운·홍산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장애아동·취약계층 아동 학습 여건 개선 앞장

전북은행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전주시의 다운지역아동센터와 홍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8호와 제209호 오픈식을 열고, 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운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문을 연 전주시 유일의 장애전담 아동센터로, 15개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배와 장판, 화장실 도어, 슬라이딩 도어 등을 교체해 실내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보조금 지원 없이 2021년 자체적으로 문을 연 홍산지역아동센터 역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센터는 책상과 의자 등 학습용 가구를 종교로 마련해 사용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북은행은 도배 작업을 비롯해 새 책상·의자·테이블·블랙이 정리함·이동식 싱크대 등을 지원하며 아동들의 학습 여건을 크게 높였다.

/오상근 기자

이날 오프닝에는 이병철 전북도원과 이보순·이성국·정성길 전주시의원, 김정옥 다운지역아동센터장, 김수정 홍산지역아동센터장,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 조인성 전주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해 새로 단장된 공부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삼성SDI, ESS 산업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뒷받침, 안전 기반 구축에 힘써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삼성SDI가 전기저장장치(ESS) 산업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삼성SDI와 함께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원하고, 급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ESS 등 설비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 개발 및 기관 간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및 소화시스템 설치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상근 기자

‘지역사회 화합·건강증진의 장’

전북 새마을금고 '파크골프 어울림 한마당' 성료

전북 새마을금고 4개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새마을금고 파크골프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4개 지역에서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권역별 분산 개최를 통해 총 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가을 햇살이 완연한 가운데 열린 대회장은 웃음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참가자들은 실력을 겨루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인 파크골프의 특성상 지역 어르신들의 활발한 참여와 호응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참가자들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와 경기 운영 전반에 세심한 준비를 기울여 즐겁고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

각 권역별 남녀부 1위 입상자 8명은 오는 11월 3일 충남 아산이순신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MG 새마을금고 전국 파크골프 어울림 한마당'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대표 선수들과 함께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격려사에서 "파크골프는 세대를 아우르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새마을금고가 지향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회원과 지역만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 건강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상근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농식품부,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행정포기군)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해 향후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지역을 지키며 공동체 유지에 기여해 온 주민들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상 지정 69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49개 군(71%)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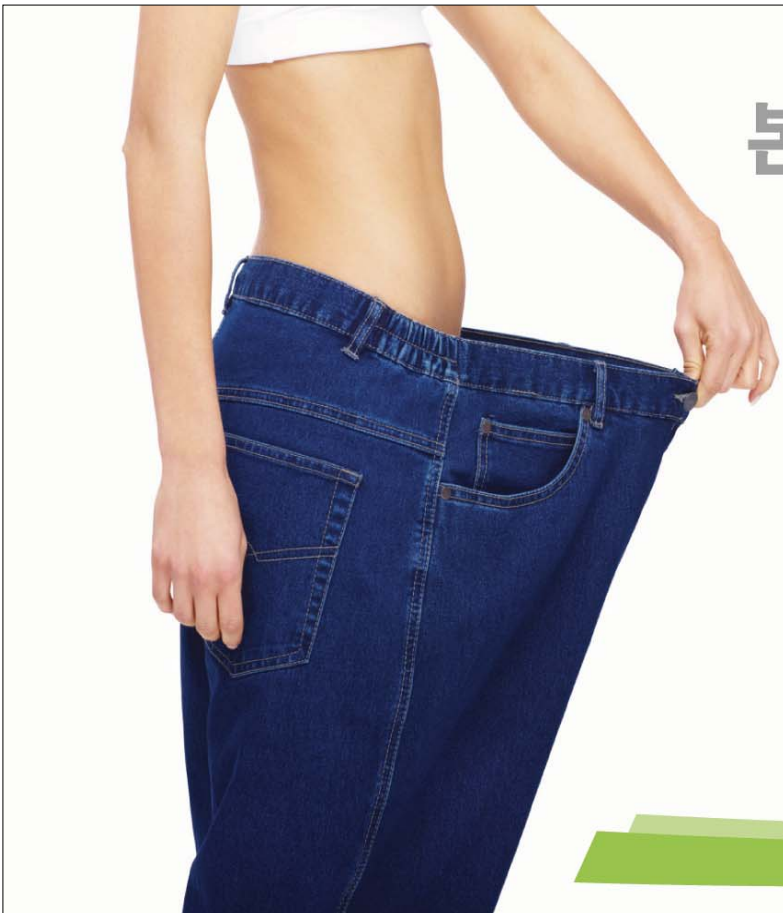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소득을 지역 활로 모색의 기회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응모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소멸위험도 및 지역 발전 수준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정책 지속성, 도입 의지, 조례 제정 여부 및 유사 정책 경험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반영됐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소득·농어촌정책·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2028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군의 예비 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